

## 승모판막 치환술에 있어 전상 보전의 효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홍부외과학교실

신동근 · 김태호 · 박진규 · 김민호 · 조종구 · 김공수

저자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홍부외과학 교실에서 기계적 인조 판막에 의한 승모판막 대치술을 받았던 환자 30예를 대상으로 classic MVR group 20예와 chordal preservation group 10예의 수술 후 단기 성적을 비교하였다. 술전 두 그룹간의 성별, 나이, NYHA functional class, 심흉비 및 심전도 소견, 심초음파 소견 및 술중 관류량, 대동맥 차단시간 등의 차이는 없었다. 술전 심흉비에 대한 술후 1개월 심흉비 비교에 있어서 두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두 그룹 사이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술전 심흉비에 대한 술후 3개월 심흉비 감소는 두 그룹 모두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술전 심전도 소견 상 대부분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심방세동이 술후에 동성 리듬으로 변화된 경우가 classic MVR 군에서 2예 있었다. 심초음파에 의한 좌심실의 기능 비교에 있어서 chordal preservation 군은 classic MVR 군에 비해 구혈분획, 단축분획률의 감소가 심하지 않았고( $p=0.47$ ,  $p=0.12$ ), classic MVR group에서는 구혈분획, 단축분획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p=0.03$ ,  $p=0.04$ ),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3$ ,  $p=0.02$ ). chordal preservation 군에 비해 classic MVR 군에서 월등히 높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승모판막 질환에 있어서 chordal preservation에 의한 기계적 승모판막 대치술이 classic group에 비해 수술후 좌심실 기능을 보존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다.